



# 민중 상처·잊혀진 존재 어루만지는 치유의 시선

아트스페이스·씨, 이진경 작가 초청 기획전  
8월 3일부터 31일까지 '먼 먼 산: 눈은 나리고'  
제주이야기 등 담은 '이진경체' 글·그림 선배

3층과 지하 1층 전시장 벽면 가득 빼곡하게 작품들이 자리했다. 공간 자체가 하나의 작품 같다.

이진경 작가가 1996년부터 최근까지 작업한 작품 중 그의 시그니처인 '이진경체'와 회화·서예의 영역을 아우르는 그림 및 설치 100여 점을 선보일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아트스페이스·씨 전시장 모습이다.

오는 8월 3일 개막하는 '이진경展 먼 먼 산: 눈은 나리고'를 앞두고 27일 아트스페이스·씨에서 이진경 작가와의 기자간담 자리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2022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우수기획으로 선정된 아트스페이스·씨의 올해 첫 기획전이자, 이진경 작가가 제주에서 펼치는 다섯 번째 개인전이다. 2020년 제5회 고암미술상을 수상한 작



아트스페이스·씨 지하 1층 전시장 전경.

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응노의 집에서 펼친 수상작가 전시 '먼 먼 산: 해치고 흐르고'와 연결시키는 큰 타이틀 '먼 먼 산'을 가져왔다.

2년 전 기획했다는 이 전시에 작가가 "제주에 대한 풍경을 담았다"고 소개하듯 3층 전시장에는 제주의 바다 이미지를 그린 '바다', 심상의 한라산, 옥돔, 갈치 등과 제주 바닷가에 떠내려 온 목재에 문구를 써 완성한 신작 등 4·3을 비롯한 제주와 한국 근현대사를 돌아켜볼



8월 3일 개막하는 '이진경展 먼 먼 산: 눈은 나리고'를 앞두고 27일 아트스페이스·씨에서 마련된 기자간담에서 이진경 작가가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돼있다.

지하 1층 전시장은 역사의 불꽃에 앞장 선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아트스페이스·씨는 "이진경 작가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상처 받은 민중의 삶부터 동식물과 전통 문화 등 분명히 존재하면서도 일상에서 쉽게 인식되지 못하는 수많은 존재들을 치유의 시선으로 어루만져 왔다"며 "이 전시는 작가의 작업을 통해 제주를 비롯 험난한 삶을 살아낸 한국 근현대사 민중들을 기억하고 치유를 염원하며 앞으로

새롭게 쓰여질 역사를 가능해보는 미술전시회"라고 소개했다.

하나하나의 작품 안에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있다. 작가는 관람객들에게 "잔잔히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전시기간 사이 이진경 작가와의 대화(개막일 오후 4시)와 강연, 워크숍 등 원도심 아트워크 '오아워(OAW·Oldtown Art Wee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청명한 제주에 '푸르름' 더하다

포스트 단색화 김춘수 개인전  
8월 20일까지 갤러리 데이저

'포스트 단색화' 대표주자로 꼽히는 김춘수 작가의 개인전 '울트라-마린, 그리움에 관한 질문'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위치한 갤러리 데이저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학과 교수를 정년퇴임하면서 교단을 벗어나 작가 본업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전시이자, 제주에서 펼치는 첫 개인전이기도 하다.

김춘수 작가는 2000년대 들어 '울트라-마린' 시리즈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선 제주도의 하늘, 푸른 바다, 생명 가득한 숲과 어



갤러리 데이저에 전시된 김춘수 작가의 작품. 갤러리 데이저 제공

울리는 신작 38점을 선보이고 있다. 최정주 전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전시 서문에서 "청명한 하늘색을 농축해 놓은 듯한 강렬한 청량감" "마

치 푸른색의 정령과 마주한 듯한 강한 이끌림"이라는 표현을 담으며 김춘수 작가가 구현하는 '울트라-마린'의 회화 세계를 설명한다.

갤러리 데이저는 "작품들의 제목인 '울트라-마린'은 작가의 작품에 쓰여 지는 청색물감의 한 명칭이라기보다 그 이름에서 비롯된 본래의 의미 '바다 건너편'의 그리움이며 유토피아와 다름이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전시는 8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오은지기자

## 7월 마지막날 음악 향연

7월의 마지막을 음악의 향연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 오는 31일 제주아트센터와 제주문화예술회관이 음악의 선율로 넘실거릴 예정이다.

양상을 까메라타는 올해 두 번째 아티스트 시리즈로 '세자르 프랑크(1822-1890) 탄생 200주년' 기념

연주회를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연다.

지난해엔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음악의 역습 'Allegro con brio'를 개최한 바 있다.

'반복, 순환 그리고 영원'이란 이름을 단 이날 연주에서 양상블 까메라타는 세자르 프랑크의 음악

을 통해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우리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을 관객과 함께 나눌 계획이다.

이날 무대엔 바이올린 김재현·김혜미, 비올라 김신우, 첼로 예지영, 피아노 원양하·안지아가 오른다. 소프라노 박민정도 함께 해 무대를 풍성하게 만든다. 공연은 오후 5시부터며,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이다.

제주색소폰앙상블은 이날 오후 6시 제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네 번째 정기연주회 '비긴 어게인'을 개최한다.

이날 공연은 새로 선임된 제주색소폰앙상블 음악감독인 김재용이 지휘한다. 소프라노 현선경이 특별 출연한다. 오은지기자

## 2002 한일 월드컵 품은 '서귀포 사계예술제'

28~8월2일 월드컵경기장 등 무대 공연·기획 전시 운영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를 재현하는 서귀포 사계예술제가 여름날을 수놓는다.

서귀포시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귀포지회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서귀포시 일원에서 제2회 서귀포 사계(여름)예술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여름예술제는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 특설무대에서 마련되는 무대공연과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리는 기획전시로 나뉘 운영된다.

무대공연은 오는 30~31일 월드컵경기장 광장의 특설무대에서 마련되며, 시민 예술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서귀포의 여름 청춘을' 공연과 서귀포시의 전문예술단체,

그리고 교류협력 단체인 한국예총 해남지회 회원들의 무대를 이어간다. 오후 7시부터는 이번 예술제의 부제인 'Again 2002'에 맞는 축하공연과 불꽃놀이가 곁들여지며 20년 전의 열기를 재현한다.

야외공연장에서는 서귀포시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활동했던 문인들의 작품 '시, 서귀포의 청춘을 노래하다 展'도 함께 열린다. 아로마공예, 모커리공방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행사의 흥미를 더한다.

전시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기획 전시로 이뤄진다. '서귀포 놀방 보명 쉬멍 그리다 展'에 도내의 작가 20명이 참여한다.

올해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에 걸쳐 열리는 서귀포 사계예술제의 운영 예산은 4억30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여름예술제에는 1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백금탁기자

## 제주에 울려 퍼질 '화해·상생' 베르디 레퀴엠

제주음협, 8월 2일 초대형 규모 평화음악회

오는 8월 2일 제주에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염원하는 베르디의 레퀴엠이 울려 퍼진다. (사)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오능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2022 제주음악제'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화해와 상생의 합동참배를 위한 평화음악회' 무대에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제향경우회의 화해와 상생 합동 참배 9주년을 맞이하며 열리는 이날 평화음악회에선 약 90분간 베르디의 레퀴엠 전곡이 펼쳐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날 무대는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제주대학교 콘체르트 코어 등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총 130여명의 제주음악인들이 출연하는 초대형 규모의 음악회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소프라노 오능희를 비롯 메소소프라노 김지선, 테너 박웅, 바리톤 김성국 등 제주출신 솔리스트 4명도 무대에 오른다. 지휘봉은 허대식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교수가 잡는다.

오능희 지휘장은 "죽은 영혼들의 넋을 기리는 진혼곡으로 치유와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초대장을 띄웠다.

공연은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다. 전석 무료. 오은지기자

## 31일까지 김소라 개인전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스튜디오 126에서 김소라 개인전 'Please Hug Me'가 열리고 있다. 31일까지 이어지는 전시기간 작가의 회화, 입체 조각, 설치 작품 18점을

만날 수 있다.

'Please Hug Me'에선 주로 두 사람이 끌어안은 형상이 등장한다. 또 일부 작업은 화환에 담긴 다양한 관계와 의미, 그 사이에 내재한 허례허식을 가볍고 유쾌하게 그려내고자 했다. 오은지기자

###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 (주)팜그린텍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4, IP55 방진방수인증

#### 시설하우스 태풍피해 대비 제품

##### 환풍기(800W)

환풍기 가동을 통해 비닐하우스내 내압을 높여 태풍으로 부터 하우스 지지 및 보호

-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강화
- 모터내 TFP(모터보호) 기능 탑재

**2022년 FTA 보조사업 품목**

##### 결상에 대비한 자동개폐기 전원자동변환 장치

태풍 또는 기타 사유로 전원 정전(결상)시 자동개폐기 전원을 안정되게 공급하여 고온피해 예방

- **특허 제10-2196685호**
- 정전(결상)시 하우스개폐기 전원 자동변환 고온피해 예방

**2022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품목**

##### 하우스지킴이

고온,저온 설정 범위 초과시 휴대폰 알림기능 자동개폐기 전원자동변환 장치와 연동시 상변환 알림기능

- 최대 5인까지 휴대폰 알림등록 가능

#### 2022년 FTA 보조사업 품목

##### 공기교반기(60W, 130W)

교반기(60W투명)

교반기(130W)

- **특허 제 10-2078975호**
- 바람판 도출구로 인해 공기흐름 사각지대 최소화(특허)

##### 상분리 제어기

- 32인 상분리 팬 제어 기능
- 자동,수동 모드
- 온도,시간 설정에 따른 제어 기능

#### 송풍팬(60W, 130W)

송풍팬(60W투명)

송풍팬(130W)

- 파이프 체결용 고정구가 있어 안정적이고 깔끔한 송풍팬 사공
- 모터내 TFP(모터보호) 기능 탑재

##### 모터(60W, 130W)

- **특허 제10-2078975호**
- 모터캡 사용으로 방습,방진으로 부터 모터 2중 보호(특허)
- 모터내 TF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http://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http://www.fgtech.kr)